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8. 6.(목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과수연구과장	고승찬	☎ 760-7400
		업무담당자	주재연	☎ 760-7414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제주도, 기후변화 맞춤형 노지 만감류 품종 보급 나선다

- 농업기술원, 노지재배용 신품종 만감류 1종 품종보호 출원 추진 -
- 온주밀감 집중 구조 해소 및 연내 수확 가능...농가 소득 증대 기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주밀감에 편중된 노지 감귤 재배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노지재배용 유망 만감류 신품종 1종의 품종보호 출원을 추진한다.
- 이번에 출원하는 신품종은 기후 적응성이 뛰어나 노지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.
 - 강한 햇빛에 타는 일소과와 과실이 터지는 열과 발생률이 각각 5%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, 연내 수확이 가능하다.
 - 평균 당도 12~13° Bx, 산 함량 1% 미만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갖춰 시장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.
- 농업기술원은 올해 도내 4개 농가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 중이며, 2027년 도내 묘목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뒤 2028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.
 - 이와 함께 노지 환경에서 안정적인 결실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종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도 병행한다.
- 현재 제주지역 노지감귤은 온주밀감 중심으로 재배돼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수확과 출하가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.

- 기존 만감류 품종 대부분이 시설재배 기반이어서 노지용 품종이 부족했으나, 최근 기후변화로 노지 만감류 재배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기후 적응형 품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.
- 한편 농업기술원은 2011년부터 매년 감귤 교배를 시행해 노지 적응성과 과실 품질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해 왔다.
- 이를 통해 가을향, 달코미, 설향, 우리향, 레드스타, 맛나봉 등 12월~이듬해 1월 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6품종을 개발·보급해 생산자의 품종 선택 폭을 넓히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다.
- 주재연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는 “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지재배용 만감류 품종 육성으로 온주밀감 위주의 출하구조를 분산하고 생산 안정을 끌어내겠다” 며 “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품종 보급과 재배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밝혔다.